

[77] 김○발(金○發)<李朝 ?~? >

李朝時代의 孝子로 新昌縣 사람이었다. 어려서 父母의 喪을 당하여 3年을 墓에서 추우나 더우나 가리지 않고 手足이 얼어서 손, 발톱이 몽땅 빠져가며 울면서 지냈다. 이 事實이 朝廷에 알려져 旌閭가 세어졌다. 只今은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輿地圖書(新昌縣)>

[78] 김소사(金召史)<李朝 ?~? >

李朝時代의 烈女, 牙山縣一東面(現 牙山郡 陰峰面) 金漢成의 妻이었다. 그 夫君이 死亡하니 父親이 딸 男子에게 改嫁시키려했으나 죽기를 盟誓하고 服從하지 않았다. 그리고 夫君의 뒤를 따라 죽으려 하니 媳父母가 警戒하여 말하기를 "네 남편은 이미 죽었으나 多幸히 아들 하나가 있으니, 네가 목숨을 保全하여 어린 孤兒를 길러 네 남편의 뒤를 繼承하도록 하여야 하느니라." 하니, 이로부터 슬픈 얼굴을 감추고 媳父母 奉養을 더욱 敦篤하게 하였다. 뒤에 그 아들이 夭折하고 시어머니도 죽으니 家事를 손아래 동서()에게 傳해주고 藥을 마시고 죽었다. 그후 선비 林舉寶가 官府에 報告하게 되자 當 己西에 新昌縣 大東面 雄山里(牙山郡 新昌面 得山里)에 旌閭를 세웠다. <輿地圖書(新昌縣), 新定牙州誌>

[79] 이시욱(李時郁)<李朝 ?~? >

江陽君 瑤의 後孫이다. 牙山縣 三西面(現 牙山郡 峙面 地域)에 살았는데 至考로 事親하여 임금께 啓聞하였다. <新定牙州誌>

[80] 허 교(許喬)<李朝 ?~? >

本貫은 陽川, 天性이 至極히 孝誠스러웠다. 집이 가난하여 나물과 좁쌀도 먹기 어려웠으나 奉養에 힘을 다하여 언제나 좋은 飲食을 마련하여 父母에게 드렸고 母親의 病患에 손가락을 끊어 피를 흘려넣어 곧 治癒시켰다. <新定牙州誌>

[81] 이은빈(李閔彬)<李朝 ?~? >

字는 士質, 本貫은 德水, 李忠武公의 后使 健秀의 아들이다. 純祖朝에 宣傳官을 거쳐 武科에 及第하여 全羅兵事를 지냈다. 父親의 病患에 금두꺼비가 藥이 된다는 醫員의 말을 듣고 겨울에 그것을 구해다가 드리니 效果 있었다. <朝鮮 輿勝覽>

[82] 최익대(崔翼大)<李朝 ?~? >

字는 漢慶, 號는 松菴, 本貫은 全州, 平度公 有慶의 后裔, 參奉 惠榮의 아들이다. 天性이 至孝하고 德行이 있었다. 母親의 病患에 壇을 設置하고 하늘에 祈禱하여 自身이 代身하여 病을 알게 해 달라고 願하였으며,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를 흘려 넣어 回甦시켰다. 오리고기를 먹기 願하였는데, 갑자기 새매 한마리가 오리를 물어다가 땅에 떨어뜨리거늘, 이것을 供進하여 效驗을 얻었다. 鄉里와 道에서 推薦하여 官府에서 賞金과 賞狀을 내리니, 그가 살고 있던 馬郎洞을 孝子里<牙山郡 道高面>라고 이름을 고쳤다. <朝鮮 輿勝覽>

[83] 열녀박씨(烈女朴氏)<李朝 ?~? >

李朝時代의 烈女로 新昌縣에 살았던 黃昌海의 妻이었다. 丙子胡亂때에 敵의 騎兵이 별안간 들이닥쳐 逼迫하려 하므로 물에 빠져 죽었다. 仁祖때에 新昌縣 大東面 雄山里(牙山郡 新昌面 得山里)에 旌閭를 세웠다. <輿地圖書(新昌縣)>

[84] 열녀조씨(烈女趙氏)<李朝 ?~? >

李朝時代 新昌縣에 살았던 孟喜의 妻이었다. 일찍 寡婦가 되어 아버이를 至極한 孝誠心으로 섬기고 아들을 法道있게 가르치었다. 當時 사람들은 孟子의 어머니에 比喻하였다. 顯宗時에 旌閭를 세웠는데 旌閭는 牙山郡 排芳面 中里에 있다. <輿地圖書(新昌縣)>

[85] 열녀최씨(烈女崔氏)<李朝 ?~? >

本貫은 全州, 參奉 致恒의 딸, 名臣 孟思誠의 后裔인 正言 魯述의 아들과 婚姻하였다. 그 女는 시집온지 얼마되지 않아 夫君이 죽고 또 子息이 없는데다가 連하여 媳父母의 喪을 當하니, 피눈물을 흘리며 三年을 지냈으며, 恭敬하여 祭祀를 받들었다. 族侄들을 거느리면서 義로운 方法으로 가르쳐 家道를 이룩하였고 나이 七十에 卒하니, 鄉里에서 推重하였다. <朝鮮 輿勝覽>

[86] 열녀이씨(烈女李氏)<李朝 ?~? >

本貫은 德水, 泰秀의 딸, 新昌 孟 仁의 妻이다. 夫君이 죽던 날부터 물과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주야로 痛哭하였으며, 山間으로 出殯하게 되매, 집에서 상당히 먼 거리였으나, 반드시 殯側에 가서 哭하면서 밤을 지내었다. 집에는 二歲의 어린 딸이 있어서 밤새도록 울고 있었으나 돌보지 않고 이와같이 한 것이 무릇 十四夜였으나, 마침내 氣盡하여 殯側에서 목숨이 끊어졌다. <朝鮮 輿勝覽>

[87] 효부김씨(孝婦金氏)<李朝 ?~? >

本貫은 驪州, 光緒의 딸, 溫陽 鄭相臣의 아들 仁敎의 아내이다. 媳父母를 잘 奉養하여 古人에게 부끄러움이 없었다. 媳父의 病患에 손가락을 끊어서 壽命을 數年동안 延長시켰다. 一門에서 兩孝가 나온 일은 世上에 드문 일로서, 이 事實이 天安誌에 실려 있다고 전한다. <朝鮮 輿勝覽>